2021/10/07

ESG Wannab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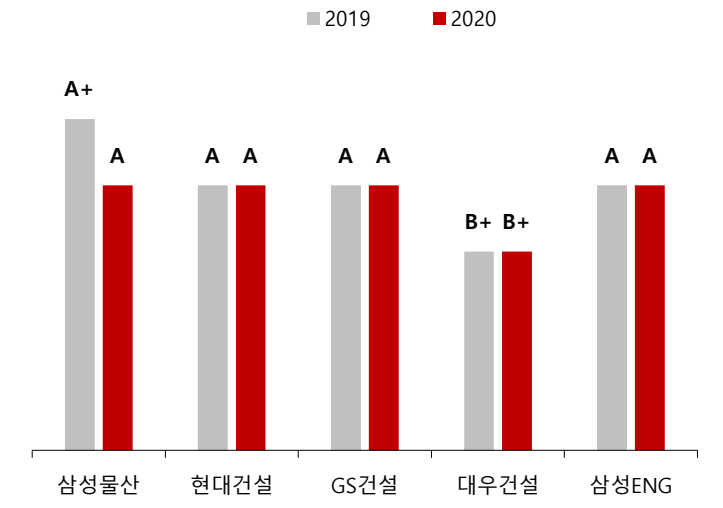
SK증권 스마트시티추진실
건설/건자재 신서정. 3773-9978

건설업과 시멘트업이 그린 ESG

● 건설업과 시멘트업 ESG 경영 가속화, 펀더멘탈에도 긍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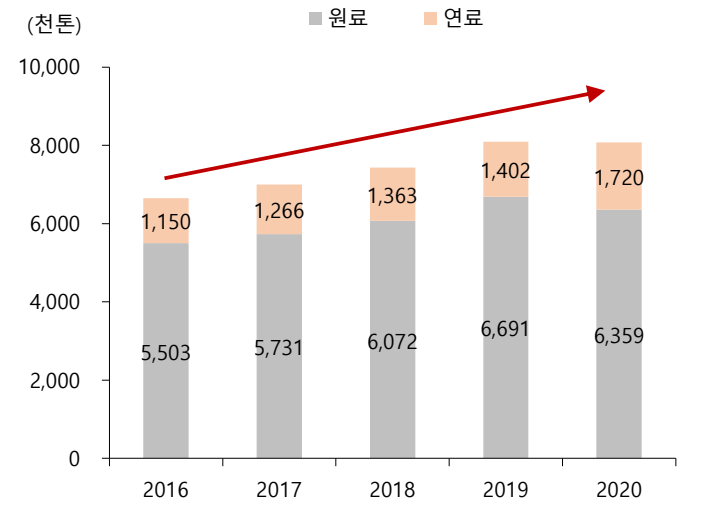
- ESG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건설과 시멘트업계에서도 ESG 투자가 본격화되는 그림
- 특히 '환경(Environment)' 산업에 투자 확대, 에너지 / 폐기물 /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 진출 사례 증가
- 대표적인 기업으로 'SK에코플랜트'를 들 수 있음. 동사는 기존 건설중심 사업구조에서 수소 연료전지 및 친환경부문으로 사업구조 다변화. 올해 9월에는 한국지역난방기술, 두산중공업 등과 '친환경 수소 가스터빈을 이용한 분산형 집단에너지사업' 추진을 위한 MOU체결. 친환경부문은 폐기물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M&A 추진중
- GS건설의 경우 상장 앞둔 GS이니마 (수처리)뿐만 아니라 GS에네르마 (이차전지 리사이클링)에도 관심 필요성
- 지난달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식 개최
- 2023년까지 1,5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연간 4천톤 규모의 리튬, 코발트, 니켈, 망간 등의 희귀금속 생산 예정
- 시멘트업의 경우 지난 2월 주요 7개사 중심으로 '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'에 서명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표. 대표적으로 쌍용C&E의 폐기물업 확대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해석 가능, 더불어 시멘트 업계 전반적으로 순환자원 재활용율 증가도 긍정적 움직임
- 업계 전반적으로 ESG 투자 확대 움직임 본격화,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

상장건설사 ESG평가 (2019년, 2020년)



자료: 한국기업지배구조원, SK증권

시멘트업계 내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



자료: 한국시멘트협회, SK증권

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 매수 / 15%~15%→ 중립 / -15%미만→ 매도